

# 미국 휴스턴 석유화학단지 “폭발”

부탄·프로판 파이프에서 가스 새 화재로 연결 ... 직원 1명 실종

미국의 대형 석유화학단지에서 가스 파이프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휴스턴(Houston) 소재 석유화학공업단지에서 대형 폭발 사고가 일어나 1명이 실종되고 공장 전체가 불길에 휩싸였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한 곳은 주로 부탄과 프로판 가스를 저장하고 운반하는 공장단지로 가스 파이프에서 폭발이 시작돼 대형 화재로 번졌으며, 수십 km 떨어진 도심에서도 화염과 불길을 볼 수 있을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폭발 당시 현장에 있던 10여 명의 근로자는 가스가 새는 소리를 듣고 미리 대피해 목숨을 건졌지만 근로자 1명은 현재 소체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02/10>